

#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1994. 9.

余仁坤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 序 文

脫冷戰 以後 국가간 關係에서 經濟가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世界經濟는 통신과 交通수단의 발달,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弱化和 日·중 경제력의 지속적인 成長 및 유럽연합(EU)의 發展, 「북미자유무역지대」의 設置 등으로 세계화, 다극화, 지역주의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경제의 이와 같은 力動的인 變化 속에서 한국은 1990년 9월 한·소 修交 이후 舊소련 및 이를 계승한 러시아와의 經協關係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이 對外開放을 통해 新國際秩序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東北亞 域內的 타 국가들도 1억 5천만 인구의 러시아 市場으로의 進出과 資源 先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바, 한국은 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金日成 死後, 金正日 體制 構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 및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하여 制限的인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에서는 對러 經協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平和를 公고히 하며 북한의 개방 유도 등 유리한 統一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本 研究를 추진하였다.

本 研究가 러시아의 동북아 및 對韓 經協戰略과 관련하여  
한국의 對러 經協政策과 統一政策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參  
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9

民族統一研究院

國際 研究 室

# 要 約

한국은 1994년 가을로 한·소 修交 4周年과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2周年을 맞게 되었으나, 양국간 經協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對러 정치·경제관계 擴大를 통해 북한을 開放시키려는 우리의 노력도 가시적인 成果를 보지 못하고 있다. 本 研究는 對러 經協을 活性化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平和를 공고히 하며 북한의 개방을 誘導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對러 經協 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1. 韓·러 兩國의 經協戰略

한국은 舊소련 時代에는 경제관계 확대를 통한 정치관계 正常化를 추구한 바 있으며 한·소 수교 이후, 특히 러시아의 舊소련 繼承 以後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對러 經協戰略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자원확보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기술협력이라는 側面에서 對러 經協을 중시하면서 산업화 경험의 移轉,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작업에 대한 參與 등을 통하여 對러 經協 補完關係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對러 經協을 확대,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北韓 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形成 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平和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셋째,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維持해온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開放을 유도함으로써 유리한 統一環境의 造成을 모색하는 것이다.

反面, 현재 권력구조가 過渡期的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경제가 沈滯 狀態에 있는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經協戰略의 주요한 基本方向은 네가지로 分析된다.

첫째, 천연자원 수출과 對일 中心이었던 동북아 역내에 대한 舊소련의 貿易構造를 기계·설비 수출 확대와 對중 中心(1993년 역내에서 對중 무역 비중은 43%)의 무역구조로 是正하고 있다. 둘째, 경제난 극복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經濟支援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自國 產業의 발전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開發을 위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와 기업들의 投資를 적극적으로 誘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政局 狀況에 있고 최악의 經濟混亂 狀態를 탈피함에 따라서 역내 국가들이 러시아 시장 및 자원 先占을 위하여 본격적인 進出을 시작하고 있다. 넷째, 민주자본주의권으로의 編入과 소련의 붕괴 이후 弱화된 아·태지역에서의 위상 회복 및 강화를 위하여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 等同 地域 經濟圈으로의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2000년까지 國民總生産(GNP) 6천 8백억 달러와 1人當 國民所得 1만 5천 달러로 성장, 선진국 대열에 進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기

와 같은 認識을 기초로 對韓 經協戰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經驗, 특히 산업과 농업 분야의 개발경험과 최신 기술을 擷得하고 자원보호 차원에서 對韓 貿易關係를 조정하며 양국간 貿易障壁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국내산업 發展과 시베리아·극동지역 開發을 위해 한국의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를 誘致하고 군수산업의 민수화 작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參與를 誘導하는 한편, 舊소련에 대한 한국의 經協借款을 첨단무기 제공 및 공동 생산·개발에 의해 償還하거나 원리금과 이자의 償還延期를 要請하려 하고 있다.

## 2. 韓·러 經協의 現況과 問題點

한·러 兩國間 經협에서 가장 가시적인 成果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무역인 바, 1993년 한국의 對러 貿易量(약 15억 8천만 달러)은 1992년 대비 129%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對러 輸出이 105% 증가한 반면, 輸入은 146% 증가하여 한국은 對러 貿易에서 약 3억 7천만 달러의 貿易赤字를 기록, 무역적자 폭이 증대(1992년 약 1억 달러 적자)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對러 投資許可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1992년까지 16건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에만 23건이 新規許可되었다. 1993년 말 현재 對러 實際 投資는 24건, 2천 4



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의 對韓 經協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투자이나 한국의 小規模 투자액(평균 33만 달러)과 투자지분(25~51%) 및 러시아의 투자환경 취약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심리적 不安感 등이 문제점으로 露呈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舊소련에 1991~1993년 期間中 30억 달러의 經協資金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금차관 10억 달러와 소비재차관의 一部 4억 7천만 달러가 1991년도에 提供되었으나 소련이 崩壞된 1991년 12월 이후 이자 지불지체로 잔여차관 제공이 中斷된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既提供된 차관 원리금과 이자에 대해 알루미늄 등의 現物 償還을 요구한 반면, 러시아 정부는 군사무기에 의한 상환이나 「파리클럽」의 결정에 따른 상환 연기를 要請하였다. 이 결과 兩國은 러시아가 군사무기와 원자재로 債務의 일부를 상환한다는 基本原則과 상환 방법 및 시기에 관해 최근 暫定合意(1994. 8. 4)하였다.

한·러 양국이 東北亞 多者間 經協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은 두만강 지역 개발인 바, 한국은 이를 통한 北韓의 開放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러·북 接境 3國間의 상이한 개발 계획과 자본 부족 때문에 同 地域 開發의 실제 사업은 아직까지 2國間 협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는 同 地域 開發에 소극적인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러·북間의 협력도 미미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

이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誘導하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判斷된다.

### 3. 韓國의 對러 經協 推進方向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高 水準의 기초과학 및 첨단 기술을 保有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 회복기에 進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短期的인 이익보다는 長期的인 국익 측면에서 段階的으로 對러 經協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첫째, 高附加 價値 製品 중심의 수출과 천연자원 수입이라는 현재의 무역정책 基調를 유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소비재 중심의 中·小規模 합작투자, 중·장기적으로는 기계·설비에 대한 大規模 합작투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舊소련 經協借款과 관련, 러시아 정부가 최근의 暫定合意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再次 지체시킬 경우에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석탄 등 現物償還 뿐만 아니라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 株式으로의 상환 등을 통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否定的인 視角을 조속히 解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국가들이 러시아의 政局 安定과 경제회복 가능성 高潮에 따라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開發에 본격적인 진출을 始作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도 자원의 安定的인 확보 차원에서 同 地域 開發에 과감한 先占

投資를 모색할 시점에 있다고 判斷된다.

舊소련이 북한에 核技術을 제공한 바 있다는 점을 考慮하여 북한 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退役潛水艦 판매와 러·북 同盟條約의 폐기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 한국 안보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정책들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安保危害 사안들을 對러 經協 問題와 연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必要가 있다.

우리 정부가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해 北韓의 開放을 유도한다는 것은 短期에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外務部가 최근 한·러·북 3角 經協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提案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한 북한의 개방 유도를 長期的으로 추진하되 短期的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3角 經協 可能사업의 실현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誘導할 必要가 있다. 즉 3角 經協을 위한 여건이 成熟되는 경우,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同 事業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協力分野를 소비재 생산 및 농업, 임업, 어업분야로부터 광물과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공장 건설 등으로 점차적으로 擴大하고, 協力地域을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및 나진-선봉 등 북한의 經濟特區로부터 북한의 他 地域으로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目 次

第 I 章 序 論 .....	1
第 II 章 韓國의 對러 經協戰略 .....	3
1. 經濟 補完關係의 強化 .....	3
2. 域內 平和構築 .....	6
3. 統一環境 造成 .....	8
第 III 章 러시아의 東北亞 및 對韓 經協戰略 .....	11
1. 러시아 情勢: 現況과 展望 .....	11
2. 東北亞 經協의 基本戰略 .....	18
3. 對韓 經協戰略 .....	39
第 IV 章 韓·러 經協의 現況과 問題點 .....	43
1. 兩者關係 .....	43
가. 貿易 .....	43
나. 投資 .....	52
다. 經濟支援 .....	60
2. 多者關係 .....	62
第 V 章 韓國의 對러 經協 評價와 推進方向 .....	66

1. 對러 經協의 評價 .....	66
2. 對러 經協 推進方向 .....	69
가. 段階的 經協擴大 .....	69
나. 經協과 韓國安保의 連繫 .....	74
다. 3角經協을 통한 北韓의 開放誘導 .....	75

## 表 目 次

〈表 1〉 러시아의 主要 經濟指標 .....	15
〈表 2〉 러시아 經濟展望 .....	17
〈表 3〉 구소련/러시아의 域內 貿易 推移 .....	21
〈表 4〉 구소련/러시아의 域內 貿易 比重 .....	22
〈表 5-1〉 러시아 極東地域의 輸出品 構成 .....	26
〈表 5-2〉 러시아 極東地域의 輸入品 構成 .....	26
〈表 6〉 域內 國家의 구소련/CIS 經濟支援 現況 .....	28
〈表 7〉 域內 企業들의 對러 投資現況 .....	33
〈表 8〉 韓國의 對러 貿易現況 .....	45
〈表 9〉 韓國의 對러 10大 輸出品目 .....	46
〈表 10〉 韓國의 對러 10大 輸入品目 .....	47
〈表 11〉 韓國 企業의 支社設置 現況 및 豫定 .....	49
〈表 12〉 韓國 企業의 年度別 對러 投資許可 件數 .....	53
〈表 13-1〉 韓國의 對러 投資 現況 .....	54
〈表 13-2〉 韓國의 對러 投資 計劃 .....	56
〈表 14〉 韓·러 經協可能 極東地域 23個 프로젝트 .....	57
〈表 15〉 韓國의 對소 經濟支援 .....	60
〈表 16〉 豆滿江流域 開發圖 .....	64
〈表 17〉 3角經協 可能 事業에 대한 러시아의 提案 .....	77

## 第 I 章 序 論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지난 2년여 동안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改革政策을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일·한 등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의 제반 관계를 增進시키고 있다. 1990년 9월 구소련과 국교를 수립한 바 있는 한국도 러시아의 국제법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치·경제·군사·과학기술·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한·러 양국은 특히 경제면에서의 이해 일치로 무역 및 투자 등을 擴大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아직까지 양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구 사회주의권 및 구소련의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國際的 孤立에 처해 있는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하고 북한을 脫冷戰 이후의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려는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本 研究는 첫째, 탈냉전 이후 국가간 관계에서 경제가 중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對러 經협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둘째, 한·러간 경제관계가 증진되면 정치적 협력도 강화될 것인 바,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차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북한의 開放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對러 經협 추진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第2章에서는 한국의 對러 경험전략을 경제와 안보 및 통일정책 면에서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對韓 경험전략이 고찰된 第3章에서는 먼저 개혁정책을 추진중인 러시아의 정세 현황과 2000년까지의 향후 정세가 정치면과 경제면에서 分析·展望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對韓 경험전략 분석에 앞서 동북아 경험의 기본전략 및 미·일·중·북한 등 동북아 역내 타국가들과의 경험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第4章에서 서술된 한·러 경험현황과 比較할 수 있게 하였다. 第4章에서는 한·러 양국간 경험현황과 문제점들을 무역과 투자 및 경제지원 면에서의 양자관계와 두만강지역 개발 중심의 다자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結論에서는 상기와 같은 고찰과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한국의 對러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對러 경험관계 활성화와 북한의 개방 유도 등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對러 경험 推進方向이 제시되었다.



## 第Ⅱ章 韓國의 對러 經協戰略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은 대체적으로 첫째, 相互 經濟 補完 關係의 강화, 둘째, 經協 擴大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平和構築, 셋째, 유리한 統一環境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개방유도 등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推進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機能主義理論」(functionalism)<sup>1)</sup>에서의 「波及效果」(“spill-over” effect)를 기대하며 舊소련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통한 정치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한 바 있으며, 한·소 修交 이후부터는 兩國間 經協 확대와 선린우호 관계의 공고화를 통한 安保 協力 및 유리한 統一環境의 造成을 기대하고 있다.

### 1. 經濟 補完關係의 強化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초로 國力을 신장하여 왔는 바, 무역량 세계 13위, 국민총생산(GNP) 세계 15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국력과 세계경제에서의 位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및 미래지향이라는 5大 基調를 핵심으로 하는 新外交政策을

1) 國際關係에서의 機能主義 理論은 국가간 統合에 관한 이론인 바, 이에 대해서는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8), pp. 222~25 參照.

추진하고 있다.<sup>2)</sup>

동아시아 경제정책과 관련, 한국정부는 역내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경제발전의 經驗과 技術을 이전하는데 정책의 주요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일이 오랫동안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한 파트너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1990년대 초에 수립된 외교관계를 기초로 중·러와의 경험관계를 심화·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특히 對러關係에 있어서는 자원확보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기술협력이라는 세가지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重化學工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량의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資源貧國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자원들의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바,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安定的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둘째,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온 한국의 輸出主導 政策은 오늘날의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2) 韓昇洲 外務長官 演說文, “韓國 新外交의 基調 - 世界와 未來指向의 新韓國 外交 -,” (外交協會主催 午餐會, 1993. 5. 31).

할 수 있다. 1962년에 단지 5천 5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수출이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1992년에는 766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1992년 貿易收支는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 바,<sup>3)</sup> 이는 점증되는 서방의 보호무역주의 및 가격과 질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 등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정부는 수출경쟁력을 強化하고 수출시장을 多邊化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한국의 1992년도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동남아, 일본의 순으로서 이 국가들이 전수출액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1억 5천만 인구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 진출을 摸索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의 생산기술 및 경제개발 경험과 러시아의 尖端技術(광학, 항공, 우주산업 분야와 핵기술 분야 등)을 결합함으로써 국내산업 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출상품의 競爭力을 높이려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러시아에 그동안 蓄積하여온 생산기술과 산업화의 경험 이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참여,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參與 등을 통하여 對러 經協 補完關係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

3) 聯合通信, 「聯合年鑑 1994」, p. 354.

## 2. 域內 平和構築

한국의 對러關係는 구소련과의 국교 수립뿐만 아니라 1992년 11월 체결된 「韓·러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을 기초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한·러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의 정치,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에도 불구하고 域內 國際秩序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모색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의 상존 등으로 冷戰의 殘滓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과도기적인 不安定 局面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 하에서 한국은 북한의 核開發 疑惑을 완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地政學的 이해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경우 자국의 개혁정책 뿐만 아니라 對한국 및 對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동북아질서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東北亞 多者間安保協力體」의 형성을 역내 국가들에 촉구하는 한편,<sup>4)</sup>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4) 열린 大統領은 訪韓時 國회연설(1992. 11. 19)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안보협의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국가간의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제의한 바 있으며, 파노프 前 駐韓大使도 역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위한 메카니즘의 창출을 주장하였다. *The Korea Herald*, November 20, 1992; *Defens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이와 함께 러시아는 북한과 과거의 이념적, 군사적 특수관계를 배제하고 冷戰以後時代의 국제질서에 상응하는 對북한 정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그동안 “제 분야에서 결속되어온 모스크바와 평양이 이념적 차이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에 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과거에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와 선린관계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sup>5)</sup>는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1993년 11월 退役潛水艦 12隻을 「고철용」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판매한 바 있으며, 1996년에 만료되는 「리·北 同盟條約」(1961년 체결)의 폐기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政策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정부는 북한과 오랫동안 諸般 關係를 유지하여 왔으며 한국의 자본과 기술 및 개발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경협을 확대, 善隣友好 關係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 핵 투명성의 확보,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 형성 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평화를 定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5)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 29.

### 3. 統一環境 造成

한국은 1971년 구소련과 중국 및 동구의 구사회주의국가들, 소위 「非適性國家들」에 대한 무역법 개정과 김용식 외무장관의 외교관계 수립 의도표명,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등을 통하여 「北方政策」(Nordpolitik)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북방정책은 1960년대 말 미·소간의 긴장완화와 이에 따른 미국 닉슨 행정부의 남북한에 대한 군사대결의 완화 촉구 및 북한, 구소련, 중국, 동구 제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권고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1973년 「6·23 宣言」은 구소련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 비공식적인 무역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양국간에 약간의 進展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북방정책은 동서 냉전구조의 틀 속에서 守勢的인 대응과 외교경쟁에서 대북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目標에 제한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sup>6)</sup> 이와 함께 한·소 접근에 대한 북한과 중국 측의 지속적인 항의와 1970년대 후반 미·일·중 3角 協力關係의 형성 및 1983년 KAL기 격추사건 등으로 한·소관계는 다시 냉각기를 맞게 되었다.

---

6) 김달중, “북방정책과 한 동구관계 개선의 의미,” 『민족지성』, (1989. 8), p. 88.

한국의 북방정책은 1988년 3월 第6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긴장완화를 추진하던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외교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 및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開催가 배경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가시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향한 특별선언」을 발표, 정치적 교류와 비정치적 교류의 과감한 並行推進 및 對북한정책과 통일정책의 連繫 등을 밝혔다.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의 非孤立化 原則을 천명하고, 북한과 이미 수교한 공산국가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더라도 북한과는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발전과 개방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서로 和合하여 통일의 길로 나가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sup>7)</sup> 이로써 한국의 북방정책은 단순히 「비적성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차원을 초월하여 이 국가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閉鎖政策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려는 戰略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한국은 1989년에 헝가리 및 폴란드와 수교를 하였고 1990년 9월에는 40년 이상 북한과 이념적, 군사적 同盟關係에 있던 구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었다. 한·소 수교

7) 金學俊, “韓國休戰 이후 現在까지의 大韓民國의 北方政策,” 「韓國 北方關係의 政治外交史的 再照明」(韓國政治外交史學會 論叢 第6輯, 1990), p. 256.

직후인 1991년 1월 한국은 경제난에 처해 있는 구소련에 30억 달러의 經協借款 제공을 약속하였는 바, 이는 구소련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하는 한편 구소련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誘導해 보려던 한국 정부 北方戰略의 일환이었다.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대내적으로 심각한 經濟難에 처해 있는 바, 현 한국정부도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開放을 誘導함으로써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탈냉전의 국제질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리한 통일환경을 造成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第Ⅲ章 러시아의 東北亞 및 對韓 經協戰略

本章에서는 러시아의 對韓 經협전략을 분석하기에 앞서 러시아의 情勢 現況과 展望, 동북아 經협의 基本戰略이 우선적으로 고찰 되었다.

#### 1. 러시아 情勢: 現況과 展望

러시아 政局은 1993년 12월 신헌법 채택과 새로운 연방의회 구성으로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는 바, 1996년 大選을 앞두고 보·혁간 권력투쟁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경제 호전에 힘입어 엘친 대통령 등 개혁파가 재집권, 2000년까지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豫測된다. 러시아 경제는 아직까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1992년을 고비로 混亂 狀態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플러스 成長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好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가. 政治面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은 국가의 主要 目標을 사회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과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두고 改革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急進政策들이 가이다르 총리대행 하

에 추진되었으나 이의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난 가중과 보·혁간의 권력투쟁 및 경제개혁노선 대립 때문에 가이다르는 1992년 12월 10일 제7차 人民代表大會에서 총리 인준을 받지 못하였고, 중도보수와 체르노미르딘이 총리직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개혁정책은 정부내 표도로프 등의 개혁파와 체르노미르딘 등 중도보수와 간의 경제정책노선 대립과 의회내 保·革間 權力鬭爭 심화 때문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93년 가을 열린 대통령의 보수와 武力鎮壓 이후 1993년 12월 12일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다당제 민주선거에서는 인민대표대회와 최고회의 등 구소련 정치체제의 殘滓를 완전히 청산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열린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改革派의 의회내 다수의석 확보 실패, 극우·보수정당의 부상, 중도파 정당의 약화 등으로 개혁정책을 加速化하기는 어렵게 되었다.<sup>8)</sup> 반면,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현재 입지가 약화된 열린 대통령과 극우·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의회간의 仲裁者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자신의 입지가 연방의회

8) 450명으로 구성되는 러시아 聯邦下院(국가두마)의 의석분포는 대체로 改革派 32%, 中道派 23%, 保守·極右派 43%로 나타나고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1st quarter 1994* (London: EIU, 1994), pp. 11~12.

및 軍產複合體와의 연계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옐친 대통령과 아직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옐친 대통령과 극우민족주의자이며 러시아자민당 당수인 지리노프스키 등 反 옐친 정치지도자들은 정국 안정을 위하여 차기 大選과 總選이 실시되는 1996년까지 향후 2년간 모든 政爭의 종단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화합을 위한 시민협정」에 1994년 4월 28일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국은 현재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次期 大選과 總選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展望된다.

민주러시아를 창설한 옐친 대통령이 憲政의 점진적 안정과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권력 강화 때문에 次期 大選에 출마하지 않고 사임, 명예퇴직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推測도 있으나, 後術되는 바와 같이 러시아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경우 1996년에 옐친 대통령이 재집권하거나<sup>9)</sup> 또는 다른 개혁파 지도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反對의 경우, 개혁파 가이다르 「러시아 선택당」 당수와 야블린스키 의원, 중도파 스코코프 전 안보회의 서기 및 옐친 대통령의 主要 政敵인 前 副統領 루츠코이 등이 大選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보·혁간 권력투쟁의 재현도 예상된다.

9) 1931년 생인 옐친 大統領은 1993년 憲法 改正時 大統領의 65세 연령제한 규정을 廢棄한 바 있으며, 현재 재선을 위한 親衛政黨 창설을 구상중에 있다.

## 나. 經濟面

경제면에서 러시아의 개혁정책은 현재까지 크게 두段階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제1단계는 1992년 12월까지 가이다르 총리 대행 하에 추진되어 왔던 急進 改革政策 시기이었으며, 제2단계는 체르노미르딘 총리 하에 추진되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漸進的 履行을 위한 시장기능과 국가통제의 병행정책 시기이다.

제 1단계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① 긴축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한 經濟安定化, ② 價格自由化, ③ 국영기업의 民營化 및 토지 私有化, ④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轉換, ⑤ 對外開放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진적인 정책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 경제정책은 ① 국민총생산(GNP) 10% 이상의 大規模 재정적자와 루블화 가치 폭락, ② 연 2,600%의 물가폭등, ③ 민영화에 따른 기업도산으로 대규모 실업자 발생 및 경제마피아의 등장, ④ 군산복합체 관리자들의 保守性과 외국투자 여건의 미비로 인한 민수 전환 작업의 지체, ⑤ 무역수지상 흑자기조의 후퇴 등으로 經濟混亂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1993년의 러시아 景氣는 1992년에 실시된 급진 경제개혁의 실패 영향과 보·혁간의 계속된 정쟁으로 전 산업 부문에 걸쳐 침체되었다. 그러나 1993년도 主要 經濟指標의 하락율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1992년에 나타났던 최악의 경제 혼란 상태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의 1993

년 주요 경제지표를 1992년과 비교할 때(〈表 1〉參照) 국내 총생산(GDP)은 12% 하락하였는 바, 이는 구소련 경제의 붕괴로 인한 원자재 공급상의 난점, 생산물품의 분배와 판매상의 어려움, 투자의 침체, 방위산업 생산의 하락 등 때문이다.

공업생산은 16.2%, 에너지 생산은 6% (석탄 9%, 천연가스 3%, 전기 5%, 원유 12%) 각각 減少하였으며, 652개의 연방정부 투자 프로젝트 중 1993년에 단지 193개 프로젝트만이 완료되었다. 주택건설은 안정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약 1천만 세대가 주택공급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생산은 4% 감소한 반면, 사유농장에서의 생산은 4% 增加하였다.

〈表 1〉 러시아의 主要 經濟指標

(單位: 前年對比 增減率 %)

	1990	1991	1992	1993
국내총생산(GDP)	-11.0	-12.9	-18.5	-12.0
생산국민소득	-4.0	-14.3	-22.0	-
공업생산고	-0.1	-8.0	-18.0	-16.2
농업생산고	-3.6	-4.5	-9.4	-4.0
소비재생산	7.3	-0.8	-15.4	-11.1
투자	0.1	-15.5	-39.7	-15.0
주택공급	-12.4	-19.1	-16.0	0.7
소비자물가	-	2.6배	26.1배	9.4배
공업제품 도매물가	-	3.4배	33.8배	10.0배
화폐국민소득	18.0	2.2배	7.5배	11.0배
월평균 임금(루블)	296.8	552.0	6,126.7	58,000
수출	-4.8	-28.4	-16.7	1.4
수입	4.9	-45.6	-16.9	-27.0

出處: ロシア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 經濟速報」, 1994. 2. 15, no. 946, p. 4.

소비자물가는 연 2,600%로부터 940%로 下落하였으나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10%의 부유층이 인구 10% 빈곤층의 11배에 달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失業者가 현재 7~8백만 명으로써 실업율은 10%에 이르고 있다.<sup>10)</sup>

이에 따라서 옐친 대통령은 1994년 2월 24일 연방의회에서의 年頭敎書를 통해 효과적인 국가조정과 시장메카니즘을 조화시키면서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는바, 점진적인 시장경제개혁을 통한 「社會國家」(a social state) 건설을 指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11)</sup>

러시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경제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시장경제로의 履行政策이 성과를 나타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가 점진적으로 好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에 -12%이었던 GDP 하락율은 점차로 축소되어 1994년에 -5%, 1995년에 -3%를 기록하고, 공업·농업생산고와 투자의 하락을 축소 및 소비자물가 하락,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등이 豫測되고 있다. 또한 비교적 객관성을 띠고 있는 舊社會主義 경제전문기관인 PlanEcon사와 「世界銀行」(World Bank)은 1995년부터 러시아 경제가 점차로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고

10) EIU, *Country Report: Russia, 1st quarter 1994*, pp. 26~30.

11) "Russian Federation President's Message to the Federal Assembly,"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8 February 1994, p. 48 참조.

있다(〈表 2〉參照).

〈表 2〉 러시아 經濟展望

(單位: 前年對比 增減率 %)

		1993	1994	1995	1996	1997
GNP	PlanEcon	-10.0	-6.0	0.7	4.7	5.2
	World Bank	-5~-8	-1~1	1~3		
GDP		-12.0	-5.0	-3.0		
공업생산고		-16.2	-6.0	-4.0		
농업생산고		-4.0	-5.0	-2.0		
소비자물가		940	600	400		
투자		-17.0	-10.0	-5.0		
수출(10억 달러)		43.0	44.0	47.5		
수입(10억 달러)		27.0	31.0	36.0		

出處: Plan Econ, *PlanEcon Report 1993*; World Bank, *Russian Economic Reform Crossing the Threshold of Structural Change* (Washington, D.C., 1992); The EIU, *Country Report: Russia, 1st quarter 1994*, p. 9.

러시아 경제는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展望되나, 마샬 골드맨(Marshall I. Goldman) 하바드 大學校 「러시아연구센터」 副所長이 밝힌 바와 같이<sup>12)</sup> 러시아가 시장경제구조의 제도적 구축이라는 의미있는 개혁을 完結하기까지는 수 십년이라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러시아에서는 1993년 12월 12일 총선 실시와 신헌법 채택으로 새로운 권력구조가 편성되었으나 1995년 말 또는 1996년 초에 大選과 總選이 다시 실시되어야 하는 바, 현 연방

1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4~25, 1993, p. 4.

정부와 연방의회는 過渡期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자국의 정세를 얼마나 조속히 安定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연방정부에 의한 법과 질서의 유지 및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체제의 定着 與否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現 情勢는 과도기적인 권력구조와 경제침체로 特徵지워질 수 있으나, 1990년대 후반의 러시아 정세는 개혁파에 의한 개혁정책의 지속과 경제 호전 등으로 安定 局面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2. 東北亞 經協의 基本戰略

冷戰 以後時代를 맞이하여 러시아는 안보이해와 경제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國益 中心의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양자간 무역관계 발전, 서방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투자 및 지원 유도, 구소련의 외채문제 해결, 선진 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 구소련 지역 내에 통합된 경제권의 유지와 발전 등을 對外經濟政策 目標로 삼고 있다.<sup>13)</sup>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경협전략 기본방향은 상기와 같은 대외경제정책 목표와 다음과 같은 냉전이후시대의 동북아 경제상황에 대한 認識을 기초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December 1992, pp.3~5; "Russia's Foreign Policy Concept,"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1993. 1, pp. 14~16; Andrei Kozyrev, "Russia: A Chance for Survival," *Foreign Affairs*, vol.71, no.2 (Spring 1992), p. 9.



동북아지역의 경제관계에서는 經濟安保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의 역내 시장 개방유도 정책,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 한국의 성공적인 북방정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제한적 개방정책 및 미국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성 의도 천명, 일본의 아·태 경제통합 가능성 摸索 등으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지역을 자국의 경제잠재력과 연관지어 주요한 곳으로 看做하고 있으며, 역내 경제협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일·한·대만 등 역내 자본주의국가들이 현재 경제개혁을 推進하고 있거나 경제적 시련기에 처해 있는 러·중·북한·몽골 등보다 경제적인 우위를 계속 점할 것으로 展望하면서 동북아지역의 경제관계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인식하에 러시아는 구소련시대의 유럽중심 정책을 脫皮하여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sup>15)</sup>

14) Viktor Stefashin,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2, 1992, p. 73.

15) 세르게이 츠플라코프 러시아 對外關係局長은 1993년 12월 1일 「모스크프스카야 프라우다」紙와의 會見에서 "러시아는 그동안 정치적인 側面 이외에 경제협력, 신기술과 설비 도입, 경영 경험과 자원의 판로문제 등으로 西方과 긴밀히 協力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世界經濟 環境의 변화로 러시아의 경제발전 速度가 서방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앞으로 대외경제관계의 重點을 서방보다 아·태지역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1993. 12. 3.

上記와 같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정책 목표와 동북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구소련의 붕괴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추진되어온 실질적인 동북아 경제정책을 考慮해 볼 때, 동북아 역내에 대한 러시아 경제전략의 주요한 基本方向은 첫째, 수출확대를 통한 域內 貿易構造 是正, 둘째, 경제회복을 위한 域內국가들의 經濟支援 誘導, 셋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域內國家들의 投資誘致, 넷째, 아·태 經濟圈으로의 編入 等인 것으로 분석된다.

#### 가. 域內 貿易構造 是正

러시아는 천연자원 수출과 對일 중심이었던 東北亞 域內에 대한 구소련의 무역구조를 기계·설비 수출확대와 對중 중심의 무역구조로 是正하고 있는 바, 구소련과 러시아의 域內 무역구조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구소련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남북한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域內 무역 의존도는 <表 3>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도에 全世界 무역액의 5% (수출 3%, 수입 7%)에 불과하였으나, 「신사고」외교를 표방한 고르바초프의 적극적인 아·태 경제정책 결과로 1990년도에 8%(수출 7%, 수입 8%), 1991년도에 14%(수출 10%, 수입 18%)로 각각 增加하였다. 하지만 구소련의 域內 무역수지는 年平均 24~3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表 3〉 구소련/러시아의 域內 貿易 推移

(單位: 百萬달러)

		1980	1990	1991	1992	1993
전세계	수출	76,384	101,000	46,604	39,967	42,971
	수입	68,425	117,667	45,345	34,981	27,032
	계	144,809	218,667	91,949	74,948	70,003
대미국	수출	442	1,063	726	694	2,000
	수입	1,513	3,396	3,783	2,884	1,500
	계	1,955	4,459	4,509	3,578	3,500
대일본	수출	1,703	3,046	2,138	1,569	2,769
	수입	3,076	2,819	2,414	1,680	1,501
	계	4,779	5,865	4,552	3,249	4,270
대중국	수출	240	1,945	1,650	2,737	3,300
	수입	251	2,463	1,745	1,669	4,100
	계	491	4,408	3,395	4,406	7,400
대한국	수출	9	336	328	204	975
	수입	23	571	255	753	601
	계	33	907	583	957	1,576
대북한	수출	443	1,478	176	227	350
	수입	437	1,020	171	65	80
	계	880	2,498	347	292	430
역내총액 (총무역증 %)	수출	2,837 (3)	7,868 (7)	5,018 (10)	5,431 (13)	9,394 (21)
	수입	5,300 (7)	10,269 (8)	8,368 (18)	7,051 (20)	7,782 (28)
	계	8,137 (5)	18,137 (8)	13,386 (14)	12,482 (14)	17,176 (24)

註: 1992년 이후는 러시아만의 무역액.

出處: 1980년과 1990년 통계는 鄭永祿, 「東北亞地域 貿易構造와 域內輸出競爭力 比較」(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1), p. 122.  
 1991년 통계는 로시아東歐貿易會, 「로시아東歐貿易 調査月報」, 1992. 8, pp. 1 & 8~10 (1달러=1.7466루블로 환산).  
 1992년 통계는 Ibid., 1993. 8, pp. 2~3. 1993년 통계는 각종 자료 參照.

또한 〈表 3〉에 의하여 작성된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소련 당시 동북아 역내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대체적으로 일본, 미국, 중국, 북한, 한국 순이었으며, 主要 輸出國은 일본, 중국, 미국, 북한, 한국, 그리고 主要 輸入國은 미국, 일본, 중국, 북한, 한국 순이었다. 1991년에 구소련의 對한국 무역비중이 북한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면에서 북한과 한국의 우선순위가 반전되고 있는 바, 이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에 따른 양국간 무역 증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表 4〉 구소련/러시아의 域內 貿易 比重

(單位 %)

수출입	무역상대국	1980	1990	1991	1992	1993
수출	미 국	15	13	14	12	21
	일 본	60	38	42	28	29
	중 국	8	24	32	50	35
	한 국	0	4	6	3	10
	북 한	15	18	3	4	3
수입	미 국	28	33	45	40	19
	일 본	58	27	28	23	19
	중 국	4	23	20	23	52
	한 국	0	5	3	10	7
	북 한	8	9	2	0	1
수출입	미 국	24	24	33	28	20
	일 본	58	32	34	26	24
	중 국	6	24	25	35	43
	한 국	0	5	4	7	9
	북 한	10	13	2	2	2

구소련의 역내 수출입품목을 考察할 때, 1989년의 경우 최대 역내수출 항목은 완제품·반제품·원자재·공산품(펄프, 철강, 비철금속 등)으로서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외에도 광물성 연료, 운할류 및 관련물질류(17.1%), 비식용 원재료류(16.4%), 기계 및 운수장비류(12.7%) 등이 중요한 輸出項目이었다. 수입의 경우 완제품·반제품·원자재·공산품이 전체의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외에도 기계 및 운수장비류(22.5%), 기타 제조제품류(18.7%) 등이 중요한 項目이었다.<sup>16)</sup>

동북아역내에 대한 구소련의 무역수지가 연평균 24~34억 달러의 赤字를 기록하고 수출품이 천연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 러시아는 국제시장에서 천연자원 가격의 下落 趨勢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수입구조와 관련, 러시아는 자국이 기술도입에 의한 合作生産보다는 기계와 설비 수입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기술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대외무역이 경쟁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러시아는 현재 수출 증가와 수입의 점증적 축소, 자국내 기술과 소비재 자원 및 이미 수입된 선진 기술·장비의 最大 活用に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sup>17)</sup>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16) 鄭永祿, 東北亞地域 貿易構造와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1), pp. 30~31.

17) Lyudmila A. Anosova, "East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Field for Russian-Korean Long-Term Cooperation,"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p. 13~15.

있는 바, 전세계에 대한 貿易을 통해 1992년 50억 달러, 1993년 159억 3천 9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러시아의 1992년도 동북아 역내 무역수지는 16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나 1993년도에 16억 1천 2백만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이는 러시아정부가 동북아 역내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세계 무역에서 동북아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구 소련시대인 1991년의 14%(수출 10%, 수입 18%)로부터 1992년 16%(수출 13%, 수입 20%), 1993년 24%(수출 21%, 수입 28%)로 각각 增加되었다.

또한 구소련 당시 일본, 미국, 중국, 북한, 한국 순이었던 역내 주요 무역대상국이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에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북한의 순, 1993년에는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북한의 순으로 각각 변화되었다. 구소련의 가장 중요한 域內 貿易 對象國이었던 일본이 하락하고 제3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이 러시아의 제일 중요한 역내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政經不可分の原則」 고수와 질이 낮은 러시아 천연자원에 대한 일본 국내시장의 수요감소, 중국의 저렴한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選好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러간 정치·군사관계 강화에 따라서 중국이 1992년 말에 국경 5개 도시를 開放하고 1993년 7월 중국 중앙은행이 대리 국경 무역결제에 元貨 사용을 허용하는 등

무역환경을 개선하여 國境貿易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소 수교 이후 러·북 정치관계의 弱化, 북한의 경제난, 한·러간의 경협관계 확대 등으로 1991년 이후 러시아의 역내무역에서 북한보다 더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과 러시아를 비교할 때 역내 수출입품목의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내 무역 경우 현저하다. 러시아 극동지역만의 수출입품 구성을 分析하여 볼 때, <表 5-1>와 <表 5-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1년까지는 어·해산물, 연료·광물자원, 목재 등 1차산업 품목이 주요한 수출품이었으며, 기계·설비 및 운송수단, 식품생산용 원료, 일용 소비재 등 2차산업과 3차산업 품목이 수입품의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도에는 기계, 설비, 운송수단 등 2차산업 品目들의 역내 수출이 급증한 反面, 연료와 광물자원을 제외한 1차산업 품목들의 역내 수출이 감소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식료품과 일용소비재의 역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기계, 설비 등 2차산업 품목들의 역내 수입은 大幅 減少하였다. 이는 천연자원보다는 기계, 설비 수출을 통하여 역내 무역구조를 시정하려는 러시아의 東北亞 經協戰略 결과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表 5-1〉 러시아 極東地域의 輸出品 構成

(單位 %)

	1988	1991	1992
기계, 설비, 운송수단	1.90	2.20	16.90
연료, 광물자원	24.60	18.40	26.30
석  탄	(20.00)	(14.90)	(12.10)
석유제품	(3.10)	(1.70)	(8.40)
철, 비철금속	(1.50)	(1.80)	(5.80)
화학품, 비료	1.00	8.30	4.40
비료	(0.30)	(2.90)	(3.40)
건  재	0.07	0.07	0.10
목  재	28.40	17.10	14.50
일용 소비재	0.00	0.03	0.30
어물, 해산물, 어가공품	34.30	45.90	32.60
기  타	9.73	8.00	4.90
합  계	100.00	100.00	100.00

出處: ロシア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貿易 調査月報」, 1993. 7. p. 53.

〈表 5-2〉 러시아 極東地域의 輸入品 構成

(단위 %)

	1989	1990	1992
기계, 설비, 운송수단	24.4	49.6	21.9
연료, 광물자원, 금속	0.3	1.5	1.7
식품생산용 원료	25.1	21.4	-
식  료  품	14.8	3.7	25.0
일용소비재	30.1	18.3	39.4
건  재	2.8	1.8	0.9
기  타	2.5	3.7	11.1
합  계	100.0	100.0	100.0

出處: 上同, p. 54.



## 나. 域內 國家의 經濟支援 誘導

국내경제난과 구소련으로부터 이어받은 과중한 對外債務는 러시아의 경제회복을 지체시키고 있는 바, 러시아정부는 경제난 극복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 지원을 誘導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진전, 무역수지의 흑자증대 등 일부 부문에서 成果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규모 재정적자, 산업생산과 농업생산의 감소, 국내투자 축소 등으로 러시아는 전반적인 경제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1년 말 구소련의 대외채무는 672억 달러<sup>18)</sup>이었으나 1993년 말에는 815억 달러로 增加, 러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目標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인 미·일·한국은 양자간 및 다자간 차원에서 구소련에 대한 경제지원을 한 바 있으며, 특히 미·일은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經濟支援을 약속하고 있다. 미·일·한국은 1990년 초에 구소련에 대해 양자간 차원에서 차관 및 지불보증, 기술원조, 인도적 원조 등

18) 1991년 12월의 「채무할당조약」(debt allocation treaty)에 의하여 러시아가 이중 61%(약 474억 달러)를 할당받고 있다.

의 경제지원을 하였던 바, 구체적인 支援內譯은 <表 6>과 같다.

〈表 6〉 域內 國家의 구소련/CIS 經濟支援 現況

(單位: 百萬달러)

	차관 및 지불보증	기술원조	인도적 원조	합 계
전세계	64,588.70 (100.00)	2,089.81 (100.00)	3,266.67 (100.00)	69,945.18 (100.00)
미 국	5,313.45 (8.23)	229.42 (10.98)	872.86 (26.91)	6,415.73 (9.00)
일 본	2,321.06 (3.59)	27.40 (1.31)	75.42 (2.31)	2,423.88 (3.00)
한 국	3,000.00 (4.64)	1.19 (0.06)	2.54 (0.08)	3,003.73 (4.00)
역내합계	10,634.51 (16.00)	258.01 (12.00)	950.82 (29.00)	11,843.34 (16.00)

註: 괄호안의 숫자는 퍼센트. 한국의 30억 달러는 約束額.

出處: 朴濟勳, 「西方의 對러시아 經濟協力 戰略과 示唆點」(對外經濟 政策研究院, 1993. 10), p. 126.

러시아에 대한 다자간 경제지원은 對 CIS 지원 국제회의와 「서방선진 7개국」(G 7)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前者에는 미·일·한 3국이 역내국가로서 참여하였고 後者에는 미·일 양국이 역내 국가로서 현재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

對 CIS 지원 국제회의는 CIS의 안정이 전세계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주도과 여러 국가들의 참여로 추진되어 1992년도에 3차에 걸쳐 개최되었다.<sup>19)</sup> 미·일 및 각

19) CIS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다국간에 조정하는 회의는 3차회의로 종료하였고, 향후로는 CIS 각국별로 경제개혁을 위한 기술지원책을 협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국 대표들은 이 회의들을 통해 약 300~500만달러가 소요되는 「희망부여 작전」(operation provide hope) 실행, 구소련의 핵과학 기술자 유출방지를 위한 「國際科學技術센터」 설립협정 가조인<sup>20)</sup>,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하여 러시아를 포함한 CIS국가들에 경제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일은 G 7회담을 통해 對러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바, 1992년 4월 G 7 재무장관회담에서 240억 달러와 1993년 4월 동경 외무·재무장관회담에서 예상을 超過하는 434억달러의 경제지원이 合意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G 7에 의하여 약속된 240억 달러와 434억 달러 및 1993년 가을 보·혁간 무력충돌시 미국 議會에 의하여 승인된 25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소련 공화국들의 영토보전이라는 미국 정부의 前提條件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反面, 러시아정부는 IMF의 대러 경제지원 전제조건을 재정난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미국정부의 要求를 수용하는 경우 자국 대외정책이 제약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미·일 등 서방측에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

20) 이에는 미국과 EC가 각각 2천 5백만달러, 일본이 2천만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되었다.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西方側을 비판하고 있다.<sup>21)</sup>

구소련의 대외채무와 관련, 러시아정부는 1993년에 서방 채권국들과 자국 債務償還의 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전개, 동년에 지불되어야 할 150억 달러의 원리금과 이자를 향후 10년간 再調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1993년도에 30억 달러의 채무상환 의무(이중 20억 달러는 「파리클럽」 채권국 지분)를 지게되었는 바, 실제로는 29억 달러를 償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1994년도 채무는 205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쇼힌 부총리겸 경제 장관은 단지 약 40억 달러의 利子만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22)</sup>

이에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경제회복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금상환 이외의 각종 方案을 강구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채무상환의 일환으로 중국에 5억 달러 상당의 T-72 전차 등 군사무기 및 기술을 이미 提供하였으며, 한국 등에 대해서도 외채상환 방법으로 무기제공을 제의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의 정부 보유 주식(총주식의 20~30%)중 일부(4%)를 외국차관 기업과 은행에 販賣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21) Dmitry Volsky, "Moscow-IMF: Without Illusions and Prejudices," *New Times*, 6. 94, p. 23; Dmitry Volsky, "How to Help Russia, and by What Means," *New Times*, 42. 93, p. 23.

2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2nd quarter 1994* (London: EIU, 1994), p. 27.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현금상환 이외의 방법으로 外債問題를 해결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것은 무기수출 확대를 통해 군수산업을 희생시키고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武器輸出市場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보유 주식 판매를 통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의 一環인 것으로 분석된다.

#### 다. 域內 國家의 投資誘致

현재 심각한 經濟難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는 자국 국내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무한한 자연보고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와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誘致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구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인 1991년 9월 「러시아공화국 외국인 투자법」<sup>23)</sup> 제정을 통하여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 7월에는 1995년까지 최소 150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한다는 「해외투자 유치 3개년계획」을 採擇하였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본격적인 외국투자 유치를 위하여 1992년 12월 「러시아 국제협력개발기구」(Russi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1993년 2월 「러시아 국영투자공사」를 각각 設立하였다.

특히 엘친 대통령은 외국투자 유치를 러시아 경제발전을

23) 同 法の 全文은 朴濟勳,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資與件」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6), pp. 80~95.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突破口 마련을 위하여 1993년 10월 22일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환경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투자 촉진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sup>24)</sup>을 發表하였다. 그동안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이한 법적용은 외국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나 이 문제는 “러시아 내 외국투자자들의 활동 규제는 러시아 聯邦法과 大統領 布告令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기타의 하위(각료회의, 자치공화국, 자치주, 시 등) 규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동 포고령 第2條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또한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1994년 6월 27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14개 다국적 기업 대표자들과의 회합에서 외국기업의 對러 投資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합작 기업이 기계·설비·원료 등을 생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5년간 관세와 소득세 면제, 100%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인정, 모스크바 근교에 대규모 경제특구 창설 등에 관한 획기적인 措置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는 외국기업들이 이와 같은 특혜를 받는 대신 도로의 건설과 수리 등 러시아의 취약한 下部構造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sup>25)</sup>

24) 同 布告令의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에 이미 投資한 외국 기업에 대한 외국투자 規制法의 3년간 유보, 러시아인들과 同一 條件下에 외국인의 투자기회 보장, 국영기업의 民營化에 대한 외국투자의 적극 유치 등이다. 「외국투자 촉진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은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improving the work with foreign investments,” *Moscow News*, No. 43, October 22, 1993, p. 7.

25) 「중앙일보」, 1994. 6. 28.

러시아정부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合作投資를 선호하고 있는 바,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1992년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수가 3,106개에 달하고 있으며, 總 資本金 178억 2천 8백만 루블 중 외국인 투자액은 87억 3천 6백만 루블로써 외국인 투자액 비중이 49%이다. 또한 1993년 중 러시아 內 6,359개(112개국 참여)의 합작기업은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도 합작기업의 수출은 33억 1백만 달러에 달하여 러시아 全體 輸出의 8%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1993년중 러시아 전체 수입이 격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기업의 對外輸入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에 대한 동북아 역내 기업들의 投資 現況은 <表 7>과 같다.

<表 7> 域內 企業들의 對러 投資現況

국가명	1992		1993년	
	투자기업수	점유율(%)	투자기업수	점유율(%)
전 체	3,106	100.0	6,359	100.0
미 국	452	14.0	1,107	13.8
일 본	103	3.0	247	3.1
중 국	90	2.0	527	6.6
한 국	16	0.0	24	0.0
북 한	7	0.0	?	?

出處: 러시아聯邦 國家統計委員會, Irik S. Moukhamedshin,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특성,” 「지역경제」, 1993. 4, p. 79 再引用; 「북방통상정보」, 1994. 6, p. 90.

구소련 당시에는 독일 企業이 제일 많이 진출(1991년 1월 현재 독일 394기업, 13.6%; 미국 375 기업, 12.9%)하였으나, 1993년도에 약 15억 달러의 외국투자를 유치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투자가 第1順位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과 1993년 역내국가들의 對러 投資件數를 비교할 때 중국 기업들의 급속한 진출(535% 증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對러 투자면에서도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表 7>의 점유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對러 投資는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투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계획하여 왔던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서의 經濟特區를 지양하고 소규모 지역에서 가공수출 및 자유무역 거래 형태의 경제특구를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정부는 ① 극동지역의 남해안(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두만강 인접지역, 사할린), ② 칼리닌그라드, 상트 페테르부르크, 브이보르그, ③ 모스크바 근교 쉐레메티예보 공항과 도모테도보 공항 근처 등 소규모 지역에는 「自由經濟地區」(Free Economic Zones)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는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特別經濟地域」(Special Economic Regions)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sup>26)</sup>

26) 李昌在,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4), pp. 84~85.



1986년 9월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계기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발전 장기종합계획」을推進한 이후 러시아도 이 지역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바, 현재까지 역내 국가들의 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27)</sup>

미국의 對러 經協에서 곡물을 제외한 주요 관심분야는 에너지 개발로서 미국은 일본과 공동투자, 야쿠트 천연가스과 사할린 大陸棚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 극동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對러 合作投資는 어업 관련 가공 및 선박수리, 모피 가공판매 등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연방 산하 기관들을 통하여 자국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바, 모스크바에 설치된 미국 貿易開發司(TDA)의 자국기업 진출 타당성 과 시장성 조사 및 유전개발 등 7건의 프로젝트 승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극동지역 목재 가공 등에 대한 투자 지원, 輸出 入은행(EXIM BANK)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상공부 산하 비즈니스 센터의 臨時 事務室과 통신시설 등 서비스 제공이 그 예다.

일본은 1965년 7월 설립된 「일·소 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석탄개발, 사할린 대륙붕 탐사 등 많은 開發 프

27) 高致赫, “韓國企業의 對러 進出戰略 -러시아極東·시베리아地域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1993. 9, pp. 64~65; 오승구, “(구)소련 극동지역의 자원현황 및 진출방안”, 「세계경제」, 1992, 3/10, pp. 5~29.

로젝트들에 착수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위축되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자원 확보 기지로서 동남아와 호주 등을 중시하였고,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며, 북방영토 문제가 양국간 경협 증대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그동안 中小企業 중심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어업과 임업 관련 분야, 식당, 호텔 등에 주로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 기업과 함께 사할린 석유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다시 적극성을 띠고 있다. 특히 종합상사를 중심으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사망을 擴充(블라디보스톡 28개, 하바로브스크 10개)하고 있으며, 극동지역 투자 건수는 110건으로 1992년 말 이후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이 장차 삼림 자원과 유전 개발, 항만 확장공사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콘소시엄 형태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130개의 기업이 합작 형태로 식료, 의료, 경공업, 전자제품, 상점 등 3차산업 분야에 進出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고 장차 형성될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優位를 점하기 위하여 항공·철도·항만개발 등에서의 협력 강화, 자원의 합작개발, 금융분야 진출 등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주로 노동력을 투자하고 있는 바, 1966년 체결된 伐木協定에 의거하여 시베리아 벌목공

약 1만 2,500명,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농업·건설 노동자 2,400명, 쿠즈네츠크 탄광과 이르쿠츠크 암염광산 노동자 3,000여명 등 약 2만 명의 人力이 진출해 있다. 또한 북한은 1992년 7월 러시아와 남북한 관통 시베리아 가스관 부설에 관한 정부간 문서에 합의 署名한 바가 있다.

#### 라. 아·태 經濟圈으로의 編入

러시아는 민주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과 소련의 붕괴 이후 弱화된 아·태지역에서의 위상 회복 및 강화를 위하여 동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정책을 推進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이 세계공동체로 완전히 편입될 때까지는 국내상황 안정과 시장경제를 가진 민주사회로의 발전이라는 對內的 課題를 완수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sup>28)</sup>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1992년 2월 세계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촉진하고 대외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對外經濟關係部」를 신설하였으며, 자국경제의 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 및 지역국들과의 經濟協定대를 주요 外交基調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동년 4월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6월에는 구소련이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협력체라고 비난하던 IMF 및 「세계은행」(IBRD)에 정회원국으로 加入하였으며, 1994년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협정을

28) Konstantin Pleshakov, "Our National Interests in the Transitional Period,"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Nov. 1991, p. 15.

체결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본격적으로 參與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현되면 「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기를 希望하고 있다.

자국이 현재 세계경제공동체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과의 북방영토 문제 해결과 한, 일, 대만, 홍콩 등과의 우호적인 外交關係가 동북아경제공동체로의 편입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9)</sup> 또한 엘친 대통령은 1994년 2월 24일 발표한 「러시아연방 대내외정책 기본방침」에 관한 年頭敎書에서도 아·태정책의 중점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아·태지역의 국제협력에 포함시키는 것임을 強調하였다.<sup>30)</sup> 이와 관련, 러시아는 아·태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위하여 1992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第48次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국가간의 통상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이는 러시아가 구소련의 붕괴 이후 참석한 최초의 지역포럼이었다. 러시아는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아·태 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摸索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개발기구」(UNDP)의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이 자국 극동지역의 아·태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위한 중요한 措置가 될 것으로 전망하

29) Boris Jelzin, *Die Alternative: Demokratie statt Diktatur* (Frankfurt/M: Goldmann Verlag, 1991), p. 171.

3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8 February 1944, p. 61.

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역내 국가간의 상호관계가 力動的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지정학적 이해를 확보함으로써 長期的으로 자국의 位相을 회복·강화하려는 戰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對韓 經協戰略

구소련의 對한국 認識은 정치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공산이데올로기에 의하여 否定的이었으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특히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肯定的으로 변화되었다.<sup>31)</sup> 이를 기초로 한·소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직교역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 9월 30일 양국간 國交가 수립되었다.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1960년대 초에 농업후진국에 불과하였던 한국이 과거 30년간의 수출주도 정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1980년대 중반에 중진공업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국민총생산(GNP) 6천 8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

31) 當時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主任으로 한반도문제 專門家인 K. 보가투로프 博士에 의하면 “서울 올림픽에 참가했던 소련 言論人들과 政府人士들은 귀국한 뒤 對한국 關係에 대한 새로운 자세에 찬성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再評價가 이루어졌으며 소련의 입장이 좀더 現實的이고 分別력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일보」, 1990. 12. 14.

만 5천 달러로 성장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sup>32)</sup>

특히 러시아는 단기간 내에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발전을 注目하고 있는 바, 그 배경을 ① 적절한 수준의 敎育, ② 고질의 노동력과 비교적 낮은 賃金, ③ 정부의 경제보호정책과 경직된 規制, ④ 서구와 일본에서 교육받은 정부관료와 사기업인들의 고도의 經營能力, 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援助, ⑥ 사적, 공적 부문에서 해외원조의 합리적, 효과적 使用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sup>33)</sup>

경제난 극복과 경제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기와 같은 인식을 基礎로 한국과의 전반적인 경협 확대에 利害를 갖고 있다. 엘친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정부 주요 각료들의 성명서와 한국 고위관료들과의 회담내용, 러시아 內 동북아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발표논문 등을 분석하여 볼 때<sup>34)</sup>, 러시아는 對한국 경협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전략을 設定하고 있는 것으로

32) Victor I. Shipaev, "A New Russian Perception of South Korea," in Il Yung Chung (ed.), *Korea and Russia: Toward the 21st Century*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2), pp. 128~34.

33) Ibid., p. 129.

34) 엘친 대통령의 방한시(1992.11) 발표된 「한·러 기본관계조약」과 「한·러 공동성명」; Mikhail L. Titarenko,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15; Victor I. Shipaev, "A New Russian Perception," pp. 135~40 등 참조.

판단된다.

첫째, 한국이 향후 5~10년 내에 자원과 에너지 비축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경우 일본과 같이 러시아 天然資源에 대한 이해가 급격히 감소될 것인 바, 한국 경제발전의 현 단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한국 경제발전의 經驗, 특히 산업과 농업분야의 개발경험 및 최신기술 習得.

둘째, 對한국 무역관계가 주로 러시아의 천연자원·연료자원과 한국제품의 교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수요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다량의 천연자원·연료자원 수출을 필요로 하는 바, 자원보호 차원에서 對한국 무역관계의 조정 및 양국간 무역장벽과 장애의 제거.

셋째, 국내산업 발전과 시베리아·극동지역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한국의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 誘致, 합작투자의 경우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러시아 국내시장의 수요를 充足시키는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提高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 작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넷째, 對外債務의 상환 부담이 러시아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 바, 舊소련에 대해 既 執行된 한국의 14억 7천만 달러 차관과 이자를 첨단무기 제공 및 공동생산·개발에 의한 償還, 또는 경협차관 원리금과 이자 상환의 延期 要請.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 및 한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戰略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는 바, 지난 2년여 동안의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들을 다음 章에서 구체적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 第Ⅳ章 韓·러 經協의 現況과 問題點

한·러간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러시아의 域內 貿易에서 극히 낮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對러 무역수지 赤字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소비재 합작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역내 타국들과 比較할 때 투자 규모와 건수는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과 이자의 상환문제는 양국간 경제협 확대의 障礙要因으로 남아 있다.

### 1. 兩者關係

#### 가. 貿易

##### (1) 貿易現況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가시적인 成果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무역이다. 1973년 한국정부가 「6.23 평화 통일 외교선언」을 통해 구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허용을 示唆한 이후 한국과 구소련 간에는 간접무역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양국간 무역은 1980년대 중반이후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1985~89년 기간중 연평균 51.8%(수출 36.6%, 수입 58.3%)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양국간 무역의 급속한 증가에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과 1988년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한국과의 경제교류 가능성 表明 및 구소련의 「88 서울올림픽」 參加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은 수출 증대에 따라 1990년 처음으로 對蘇 무역수지 黑字를 기록하였으나 1991년에는 한국과 구소련측 통계의 큰 차이 때문에 무역수지의 결과가 相異하게 나타나고 있다.<sup>35)</sup>

또한 한국의 무역이 1991년 말 구소련의 해체로 15개 국가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1992년에도 통계상 추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측 통계는 1992년 상반기까지 상당부분 貿易이 15개 국가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단순히 구소련으로 분류·보고되었기 때문에 15개 국가별 무역량 합계(2억 2천만 달러)가 CIS 전체 무역량(8억 5천 9백만 달러)에 훨씬 未達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측 통계도 한·러 간의 무역량(9억 5천 7백만 달러)이 한국측 CIS 전체 무역량(8억 5천 9백만 달러)보다 더 많은 不一致를 나타내고 있다.<sup>36)</sup>

구소련 당시 러시아공화국은 한·소 總 貿易量의 약 80%

35) 「韓國貿易協會」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1990년 1억 4천 9백만 달러(輸出 5억 1천 9백만 달러, 輸入 3억 7천만 달러), 1991년 4천 8백만 달러(輸出 6억 2천 5백만 달러, 輸入 5억 7천 7백만 달러)의 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러시아東歐貿易會」가 소련측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본 <表 3>에 의하면 한국은 1990년 2억 3천 5백만 달러(輸出 5억 7천 1백만 달러, 輸入 3억 3천 6백만 달러)의 黑字, 1991년 7천 3백만 달러(輸出 2억 5천 5백만 달러, 輸入 3억 2천 8백만 달러)의 赤字를 기록하고 있다.

36) 朴濟勳, 「CIS 域內 交易 및 金融機關 分析」(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12), pp. 95~96 參照.

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측 통계의 1992년도 한·CIS 무역량(8억 5천 9백만 달러; 한국의 輸出 3억 6천 5백만 달러, 輸入 4억 9천 5백만 달러)에 적용할 때, 한국의 對러 무역현황은 <表 8>과 같다.

<表 8> 韓國의 對러 貿易現況

(單位: 百萬달러)

	한국측 통계		러시아측 통계	
	1992	1993	1992	1993
계	688	1,576.0	956.9	
수출	292	601.2	753.1	
수입	396	974.8	203.8	
무역수지	-104	-373.6	549.3	

註: 한국측 1992년 統計는 한·CIS간 무역의 80% 推定值.

出處: 한국측 1993년 통계는 「지역경제」, 1994. 3, p. 205. 러시아측 1992년 통계는 러시아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貿易 調査月報」, 1993. 12. p. 29.

한국측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한국의 對러 貿易量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1993년 한국의 對러 무역량은 1992년 대비 129%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이 10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46% 증가하여 한국은 對러 무역에서 약 3억 7천 4백만 달러의 貿易赤字를 기록, 무역적자 폭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의 對러 수출증대 原因은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플라스틱 제품, 합성섬유류, 치약 등 단순소비재가 수출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1993년부터는 高附加 價値

製品(칼라 TV·VTR·비디오 테이프·냉장고 등 가전제품, 승용차, 화물선)의 수출이 大幅 증가하였다. 둘째, 러시아인들이 중국과 동남아산 低級品보다는 中級 이상의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셋째, 円高 현상으로 인하여 일본과 경쟁이 심한 가전제품 등의 品目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向上되었다.

〈表 9〉 韓國의 對러 10大 輸出品目

(單位: 千달러)

순위	1992			1993. 1~11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1	플라스틱제품	55,510	7.4	칼라TV	72,806	14.2
2	합성섬유류	50,283	6.7	VTR	35,696	6.9
3	치약	50,231	6.7	승용차	34,477	6.7
4	TV	42,188	5.6	냉장고	26,320	5.2
5	VTR	40,402	5.4	화물선	23,356	4.6
6	신발류	30,750	4.1	비디오테이프	22,914	4.4
7	메리야스	19,805	2.6	세터	12,858	2.5
8	의약품	16,686	2.2	혈제의류	10,962	2.2
9	타이어			기체펌프류	9,467	1.8
10	관련부품	15,162	2.0			
	전자기기			과자류	8,459	1.6
	부속품	14,384	1.9			
	기타	417,699	57.4	기타	256,569	49.9
	계	753,100	100.0	계	513,885	100.0

註: 1992년 統計는 한국측 자료부재로 러시아측 통계 利用.

出處: ロシア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貿易 調査月報」, 1993. 12, pp. 79~80; 「북방통상정보」, 1994. 1, p. 35.

1993년도 한국의 對러 수입 경우 전년도 對比 146% 급증하였는 바, 이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현지 실정에 익숙해짐에 따라 국제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원자재 및 천연자원(철강, 금속제품, 수산물, 원목, 광산물 등)을 多樣하게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對러 輸入 品目は 국내용이나 수출용 완제품의 원자재로 이용되고 있으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對러 10대 輸入 品目は <表 10>과 같다.

<表 10> 韓國의 對러 10大 輸入品目

(單位: 千달러)

순위	1992			1993. 1~11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1	철강	49,862	24.5	선철류	108,716	12.1
2	냉동어	43,209	21.2	SLAB	83,824	9.4
3	무기화학품	14,826	7.3	BILLET	76,064	8.5
4	구리	13,045	6.4	원면	70,819	8.0
5	비료	10,231	5.0	어란	51,691	5.8
6	기계	9,171	4.5	원목	40,439	4.5
7	화물자동차	8,113	3.9	알루미늄괴	36,425	4.1
8	펄프	6,125	3.0	원유	32,807	3.6
9	석유제품	5,061	2.5	유연탄	28,705	3.2
10	기타	44,157	78.3	무기화학제	23,893	2.7
	계	203,800	100.0	기타	341,888	38.1
	계	203,800	100.0	계	895,271	100.0

註: 1992년 통계는 러시아측 통계 利用.

出處: ロシア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貿易 調査月報」, 1993. 12, p. 79; 「북방통상정보」, 1994. 1, p. 35.

上記와 같은 한·러 간의 무역구조를 종합해 볼 때, 러시아는 현재 한국 소비재의 輸出市場 및 원자재와 천연자원의 輸入市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러간의 무역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무역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는 바, 이는 무역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하부구조가 점차로 造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 시대에는 1989년 4월 「소련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서울과 모스크바 사무소 開設, 1990년 초부터 한국기업들의 모스크바 支社 設置, 同年 12월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을 통하여 한·소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한·러 間에도 1992년 11월 열린 대통령의 訪韓時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세관간 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가 合意되었다. 또한 1994년 6월 모스크바 한·러 정상 회담에서는 北韓 核問題로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은 경제협력 잠재력에 비추어 교역수준이 미흡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한·러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측은 「모스크바 무역센터」 건립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誠意를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의 APEC 가입을 호의적으로 考慮하기로 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리첸신토르크」, V·O Stanko Import 등 對 한국 수출입과 운송에 관련된 5개의 자국 지사를 서울에 설치하고 있는 反面, 한국은 KOTRA 사무소를 모스크바에 이어 블라디보스톡에도 설치하였으며 <表 1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6개 한국 기업 지사들이 러시아에서 활동중에 있다. 또한 11개 한국기업 지사와 생산기술연구원 事務所가 러

시아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狀況이다.

〈表 11〉 韓國 企業의 支社設置 現況 및 豫定

(1992. 12月 現在)

구 분	업 체 명	소 재 지	인 원
기계설	현대종합상사	모스크바	4
	현대종합상사	나호드카	2
	삼성물산	모스크바	12
	대우	모스크바	5
	럭키금성	모스크바	9
	코오롱상사	모스크바	3
	선경	모스크바	3
	쌍용	모스크바	2
	효성물산	모스크바	2
	대우	하바로프스크	1
	태평양화학	모스크바	1
	코오맥	모스크바	2
	고려합섬	하바로프스크	3
	국제사사	모스크바	1
	천지씨빙	블라디보스톡	4
아센물산	모스크바	2	
추진중	우림전자	모스크바	2
	럭키엔지니어링	모스크바	1
	KIL	모스크바	1
	삼성물산	블라디보스톡	1
	고합상사	블라디보스톡	2
	남성조선	블라디보스톡	2
	코오맥	하바로프스크	1
	성원팻션	모스크바	1
	성원팻션	예카테린부르크	1
	럭키금성	하바로프스크	1
	(주)씨니랜드	사할린	1
	트레이딩 생산기술연구원	모스크바	1

出處: 商工資源部

## (2) 問題點

상기와 같은 한국의 對러 貿易에서 현재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러시아의 역내 무역에서 극히 낮은 비중, 무역수지 적자의 증대, 대량의 특정품목 중심 무역, 폐쇄적인 외환관리와 비탄력적인 결제 방식, 러시아 시장에 대한 認識 不足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러시아의 역내 무역에서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3년도 한·러간 무역량은 러시아 역내 무역의 단지 9%(러시아의 대한 수출 10%, 수입 7%)에 不過하다. 한국은 북한(2%)보다 앞서 있으나 중국(43%), 일본(24%), 미국(20%)보다는 훨씬 뒤지고 있다. 특히 러·중간 무역은 급신장 추세에 있는 바, 1993년(무역량 74억 달러)에 전년도 대비 67% 증가, 한·러간 무역량의 4.7배에 달하고 있다. 러·일간 무역의 경우에도 1993년(무역량 42억 7천만 달러)에 전년도 대비 31% 증가, 한·러간 무역량의 2.7배에 달한다.

둘째, 1993년 한국의 北方 7個國(중국,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은 69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01.5% 증가하였고 수입은 51억 2천만달러로 28.6% 증가하였는 바, 한국은 북방무역을 통하여 17억 9천만 달러의 貿易黑字를 기록하였다.<sup>37)</sup> 한국의 對

37) 「매일경제신문」, 1994. 4. 22.



러 무역량과 무역품목은 급속도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2년에 약 1억 4백만 달러이었던 對러 貿易赤字가 1993년에 3억 7천 360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이는 1993년 한국의 총 무역적자(약 20억 달러) 중 18%에 해당한다.

셋째, 수출입 품목 구조면에서 한국의 對러 무역은 품목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特定 品目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1992년도에는 플라스틱 제품·합성섬유류·치약, 1993년도에는 칼라 TV VTR 승용차가 수출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철강과 선철류·냉동어·목재가 수입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량의 특정품목 중심무역은 경쟁력을 가진 물품의 특화라는 측면에서 長點이 있을 수도 있으나 러시아가 수출입 규제 및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국제가격의 폭락 경우 불이익을 당할 憂慮가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정부는 1994년 3월 15일부터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평균 輸入關稅를 종전 7~8%에서 13~15%로 대폭 인상하였는 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와 대형 TV의 관세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sup>38)</sup> 이에 따라서 한국의 對러 주요 수출품에 대한 타격이 豫想된다.

넷째, 한국은 외환관리가 매우 閉鎖的일 뿐만 아니라 非彈力的 무역결제 방식인 L·C(신용장) 또는 T·T(전신송금) 거

38) 「매일경제신문」, 1994. 3. 16.

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L·C 거래가 어려운 러시아 현지 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反面, 대만은 외환관리 정책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D·A 조건<sup>39)</sup> 또는 D·P 조건<sup>40)</sup>을 수용함으로써 러시아 현지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탄력적인 결제방식을 採擇하고 있다.<sup>41)</sup>

다섯째, 한국의 對北方 貿易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8%(수출 7%, 수입 8%)와 13%(수출 8%, 수입 19%)에 불과하다. 이는 러시아의 정세 불안과 경제난, 시베리아 수송열차 확보상의 난점 등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아직까지 중, 미, 일 다음의 3類市場 또는 저급품이나 재고품 시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러시아측에서는 양국 무역파트너 간의 상호신뢰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構築을 희망하고 있다.<sup>42)</sup>

## 나. 投資

### (1) 投資 現況

러시아의 對한 經協에서 최대 관심 사항은 투자 분야로서

39) 어음支給渡로서 매매화물의 대금 지급과 同時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條件.

40) 어음引受渡로서 어음 인수와 同時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條件.

41) 김영범, “한·대만의 구소련 동구 진출현황 비교,” 「북방통상정보」, 1994. 3, p. 40.

42) D. V. Morozov, “한·러 경제무역 협력전망,” 「북방통상정보」, 1994. 6, p. 32.

한국의 구소련 투자는 1989년 10월부터 모스크바에서 (주)진도의 2개 모피직매장(48만달러투자) 영업, 1990년 9월 현대그룹의 연해주 스베틀라야 지역 삼림개발 사업 着手 및 하바로프스크에 중소기업 홍중물산의 소프트웨어 開發과 무역업 설립 許可 取得 등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투자환경 미비, 한국의 對소 경제교류 경험과 경제환경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한국의 투자는 빈약한 상태에 있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한국의 對러 投資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表 1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3년 12월 현재 한국의 對러 투자는 허가 금액이 2천 9백만 달러, 39건, 실제 투자 금액이 2천 4백만 달러, 24건이다. 또한 1993년 12월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許可를 받은 對러 투자 예정 事業은 15건에 달하고 있다.

<表 12> 韓國 企業의 年度別 對러 投資許可 件數

(1993. 12 現在)

	1989	1990	1991	1992	1993	계
러시아	2	3	3	8	23	39
CLS	2	3	6	10	28	49

出處: 韓國銀行

한국의 對러 投資 地域은 1992년까지 양분되어 있었던 바, 모스크바 지역이 5건, 러시아 극동지역이 7건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에 모스크바 지역에 대한 투자는 2건에 不過하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7건에 이르

고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지역이 한국의 주요 투자 據點이 되고 있다(〈表 13-1〉 參照). 특히 1993년에 시베리아 지역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에 대한 투자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러시아의 최대 공업지대인 우랄 지역의 스페르들로프스크와 예카체린부르그 등으로 투자지역이 擴大될 예정으로 있다.

한국의 對러 投資 分野는 그동안 지리적, 산업적 특성상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그 지역에는 모피 생산과 판매, 소비재 수출 등을 위한 貿易業 투자가 중심을 이루었던 反面,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수산물 가공, 선박수리, 삼림벌채 등 원자재 수입이나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에 한국의 對러 투자상 나타나고 있는 特徵은 러시아 극동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캄차카, 야쿠티야 지역까지 소비재 수출을 위한 合作投資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3)</sup>

〈表 13-1〉 韓國의 對러 投資 現況

(1993. 12 現在)

기업명	업종	지역	투자액 (천달러)	투자비율 (%)
진도	모피	모스크바	80	10
진도	모피	모스크바	00	50
홍중물산	software 개발 및 무역	하바프스크	156	51

43) 서기원, “우리기업의 대러시아 투자현황,” 「북방통상정보」, 1994. 6, pp. 48~49.

기업명	업종	지역	투자액 (천달러)	투자비율 (%)
현대종합 상사	칩 및 목재	연해주	16,000	50
이기	위생저제조	아무르주	151	50
남성조선	조선	사할린	682	50
현재물산	음식·숙박	사할린	50	49
럭키금성	통신기기	모스크바	1,500	50
한성전기	섬유·의복	모스크바	75	50
동원산업	수산업	블라디보스톡	1,250	50
메디슨	무역업	모스크바	50	50
한라중공업	가스터빈	상트레테르 부르그	1,500	42
고합상사	무역업	하바로프스크	25	50
금해무산	무역업	사할린	100	45
삼화제련	무역업	모스크바	20	90
한성기업	수산업	블라디보스톡	69	8.6
대우전자	무역업	상트페테르 부르그	250	50
대우	무역업	감차트카주	200	50
삼성물산	무역업	하바로프스크	100	50
광덕	음식료품	하바로프스크	47	47
성원패션	의류	예카데린 부르그	250	50
로마나	수산업	연해지방	150	50
대우전자	무역업	모스크바	500	100
한국통상	무역업	사할린주	80	40
계			23,685	

出處：經濟企劃院, 商工資源部

〈表 13-2〉 韓國의 對러 投資 計劃

기업명	업종	지역	투자액 (천달러)	투자비율 (%)
삼성물산	수산업	나호드카	714	51
경인항공	서비스업	사할린	70	50
부산조선 공업	선박수리	사할린	800	50
대광실업	무역업	노보시비르스크	7	50
동호국제	무역업	예카테린부르크	70	50
남성조선	선박수리	나호드카	100	50
새한하우징	사진	모스크바	90	90
롯데쇼핑	무역업	상트페테르 부르크	220	60
동광기업사	무역업	하바로프스크	10	50
서울코리아트	제조업	울란우데	33	65
럭키금성상사 리스크	무역업	사하공하국	100	33
고합상사	다이아몬드	야쿠츠크	196	49
대우양행	가공			
선양기계	제조업	블라디보스톡	251	49
대영국제	섬유·의복	블라디보스톡	300	100
성원패션	피혁의류	예카테린부르크	38	25
계			3,062	

出處: 上同

前述한 바와 같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천연자원 개발 및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투자가 增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와 건수는 아직 미미한 狀況에 있다. 하지만 나호트카 自由經濟地域에 100만평 韓國工團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중인 바, 한국 기업 100개사와 러시아 기업 200개사가 입주할 예

정으로 있는 동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본격적으로 進出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 訪韓時 한국 정부에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23개 프로젝트를 제의하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表 14>와 같다.

<表 14> 韓·러 經協可能 極東地域 23個 프로젝트

분 야	내 용
광업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바로프스크주 프라보우르미스키 주석 광 개발, 소예즈느이 제련소, 마가단 광산 개발</li> <li>2. 사할린 대륙붕 천연가스전을 이용한 정유, 가스생산</li> <li>3. 사할린 보산코브스크 석탄 노천광 개발</li> <li>4. 하바로프스크 가스전 개발</li> <li>5. 쿠릴열도 유황 및 마그네슘광 개발</li> <li>6. 아무르주 금광, 스바보젠스키 갈탄광, 가가린스키 철광 등</li> </ol>
목재반제품·가공품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무르주 포체힘스콤 임업국 목재 반제품</li> <li>2. 하바로프스크주 라조브스콤 임업국 목재 반제품</li> <li>3. 하바로프스크주 투구르스키 임업국 목재 반제품</li> <li>4. 아무르주 트인다현 합판 생산공장</li> <li>5. 캄차카주 임업국 제재설비 공급</li> </ol>
건설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할린, 캄차카주 주택건설용 자재생산</li> <li>2. 사할린 시멘트 공장, 아무르주 차고안스키 시멘트 공장</li> </ol>
선박수리 및 해양자원 가공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할린, 캄차카주 선박수리 시설</li> <li>2. 사할린, 캄차카주 대규모 냉동설비</li> <li>3. 사할린, 캄차카주 최신식 해양자원 가공설비 건립</li> </ol>

분 야	내 용
경공업, 식료품, 계약, 생필품 생산 및 관광산업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해주 카멘현 크라스노이 빙펠공장의 제빵, 전자레인지, 가구공장 설비생산</li> <li>2. 블라고베센스키 아무르 전자기기 공장의 생필품(식료품 제외) 생산</li> <li>3.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의 직물, 의류, 신발, 가구공장 설립</li> <li>4. 사할린내 녹음기, 컴퓨터, 전화기 생산 공장</li> <li>5. 사할린 관광사업 참여</li> <li>6.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내 제약 원료 공장설립</li> <li>7. 사할린주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및 아무르주 비행장 건설</li> </ol>

出處: 「조선일보」, 1992. 11. 21.

가스전과 광산 개발 등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大規模의 투자와 장기간의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現代(株)의 스베틀라야 삼립개발을 제외하고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1994년 6월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에서 兩國은 동부 시베리아의 사하(구 야쿠티아) 自治共和國內 가스전을 공동 개발, LNG 천연가스를 서울로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1998년부터 착수하기로 合意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1천만 달러씩을 공동 출자 약 1년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러시아 國內政局이 현재 비교적 안정 단계에 있는 바,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경우 한·러 양국은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上記의 프로젝트들에 관해 더 구체적인 협의를 進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問題點

한국기업들의 對러 투자 건수 증가, 투자 지역과 분야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러 투자에서 露呈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소규모의 투자액과 한국 기업의 투자 지분, 러시아의 政局不安과 정책의 일관성 缺如에 따른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심리적 불안감 等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對러 투자규모는 3천만 달러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의 對러 投資額(55억 달러)에 대한 비중이 거의 0%에 가깝고 대부분의 한국기업 투자액은 평균 33만 달러에 불과한 實情이다. 특히 투자 규모가 큰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미, 일 등 서방이 점차적으로 進出을 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수산물 가공과 삼림벌채, 숙박업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천연자원 개발 着手도 1990년대 후반에나 가능한 상태에 있다.

둘째, 러시아정부가 外國 企業들에 대해 100% 투자를 장려, 여러가지 특혜를 주고 있으나 對러 투자자본의 한국측 지분이 대부분 51~2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셋째, 러시아의 투자 관련 법률, 특히 세금 관련 법규의 잦은 改廢와 강제 외환매각 제도, 러시아 勞働者들의 낮은 생산성 등이 외국투자 법인의 운영시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對러 投資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

#### 다. 經濟支援

한·소 兩國은 국교수립 직후인 1991년 1월 한국이 구소련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1993년 期間中 30억 달러의 경협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表 15>와 같다.

<表 15> 韓國의 對소 經濟支援 (1993. 7 現在)

(單位: 百萬달러)

차관내용	약 속 액				지급액	이자지급액
	'91년	'92년	'93년	총액		
현 금	1,000			1,000	1,000	12.50(환불)
소비재	800	500	200	1,500	470	19.30(환불)
자본재		200	300	500		
총 액	1,800	700	500	3,000	1,470	31.80

出處: 商工資源部

1991년 한국 정부는 현금차관 10억 달러와 소비재차관 4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나 소련의 崩壞로 인한 지급보증주체의 불확실과 이자지불 지체로 1991년 12월 27일 이후 잔여 차관 제공을 中斷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미 제공된 차관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을 잔여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提示하였으나 1993년 8월 쇼힌 러시아 副總理는 한국이 잔여 차관 제공을 중단한다는 합의가 양국간에 이루어졌음을

밝혔고, 홍순영 당시 외무부 차관도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경제원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決定이 내려졌다고 말했다.<sup>44)</sup> 이에 따라서 한국은 이미 제공한 차관 원리금 14억 7천만 달러와 이자를 상환받기 위한 交渉을 러시아 정부와 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한때 군수물자와 군사기술로 償還하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미국과 거의 동일한 한국의 무기체제, 러시아로부터 군사부품 공급의 연속성 문제, 한국의 對미 및 對일 안보관계 등 때문에 동 제의는 한국 정부에 의하여 受容되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는 1994년 3월 3억 8천 750만 달러에 달하는 債務(1993年 末 現在)를 석탄, 석면, 토지임대 등으로 상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1993년 4월 서방의 「파리클럽」들이 취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 要請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파리클럽」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요청을 거부하였다.

結局 양국은 實務會談을 통해 러시아가 1993년 말까지 延滯된 차관 원리금 4억 달러중 45% 군사무기, 50% 원자재, 5% 민수용 헬기로 償還한다는 기본원칙에 1994년 8월 4일 暫定 合意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同 合意를 성실히 履行할 것인지는 아직 不確實하다.

44)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30 August 1993, p. 21.

## 2. 多者關係

한·러 양국이 東北亞 多者間 經濟協力の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 개발은 관련국들이 투자 타당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북간의 철도와 도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狀態에 있다. 그러나 接境 3國間의 상이한 개발계획과 자본부족 때문에 실제 사업은 아직까지 2국간 협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實情이다.

冷戰以後時代를 맞이하여 지역 차원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동북아 국가 간에 활발히 論議되고 있는 경제협력의 한 형태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동북아 역내의 다자간 경제협력으로서 이 계획의 성공적 實現은 향후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同 프로그램은 1991년 3월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하여 선정되어 평양예비회의(1991. 10), 제1차 계획관리 위원회(PMC: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회의(1992. 2 서울), 實務者 會議(1992. 4 북경), 제2차 PMC 회의(1992. 10 북경), 제3차 PMC 회의(1993. 5 평양), 제4차 실무회의 및 PMC 회의(1994. 7 모스크바)등을 통하여 구체적 실현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의 關聯 6個國들은 동 프로그램의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두만강유역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 해운, 운송 및 가공·제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東洋의 로테르담」(Rotterdam of the EAST)'으로 만든다는데 두고 있다.

UNDP는 接境 3國이 독자적으로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국의 상이한 법률, 제도, 국제신용도 및 자본 동원능력 때문에 개발 속도가 지체되고 不均衡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공동개발 방식을 제안하게 되었다. 즉 UNDP는 중국의 훈춘 - 북한의 나진 - 러시아의 포시엣트를 잇는 소위 「小三角地域」내에서 접경 3국이 합의할 수 있는 지대를 國際的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자는 戰略을 갖고 있다.<sup>45)</sup>

開發 方式을 둘러싼 相關國 간의 참여한 대립으로<sup>46)</sup>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의 착수는 지연되어 왔으나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루비노 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및 자루비노 항 擴張 事業을 위한 중, 러의 협력과 일본의 자본 참여로 具體化되고 있다. 특히 제 3차 PMC회의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2개의 協定文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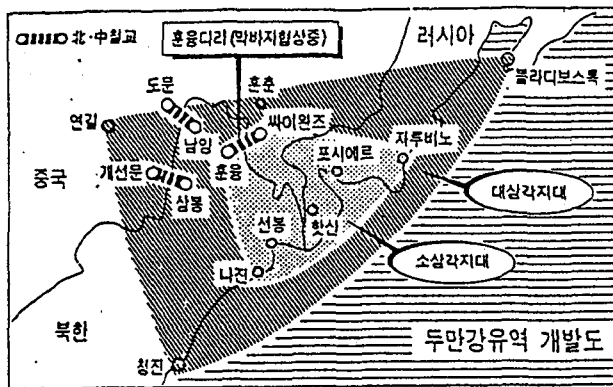
45) 金學洙,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3), pp. 15~16.

46) 相關國간의 상이한 입장에 대해서는 金圭倫,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展望」(民族統一研究院, 1992. 3. 20), pp. 17~23; 諸成鎬, 「頭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民族統一研究院, 1992. 12), pp. 61~87.

잠정적으로 합의됨으로써 동 계획은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접경 3국간의 협정문」에서는 중·러·북 3국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두만강 지역개발 회사」(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rporation) 및 임대할 토지 등 주권 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치·경제문제를 취급할 「두만강 지역개발 조정 위원회」의 設立이 合意되었다. 또한 「PMC 5국간의 협정문」에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의 촉진과 수송, 통신, 무역, 환경, 금융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고 협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간 조정 및 협의위원회」의 設립이 合意되었고, PMC 5개국은 「두만강지역 개발회사」의 設립을 促進하기로 하였다.<sup>47)</sup>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련국 간의 상이한 利害關係와 資本不足으로 실제 사업은 현재 2국간 협력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중·러, 중·북간 철도와 도로공사가 進行中이다.

〈表 16〉 豆滿江流域 開發圖



47) 임을출, “두만강개발을 위한 日·中·러 삼각협력체제 본격 시동,” 「북방통상정보」, 1993. 7, pp. 43~44.

두만강 지역 개발과 關聯하여 러·중, 중·일, 중·북 간에는 협력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러·북 간의 협력은 미미한 실정에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나진 항을 한국, 일본, 東南亞로 연결되는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고 나진-선봉지구 하부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兩國은 러시아 21개 기업이 1억 달러를 投資하고 북한이 하역창고와 부두시설 등을 現物 出資하는 계약을 1993년 9월 체결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1994년 3월 동 경제특구에 1억 루블을 투자, 북한에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최초의 합작 무역회사를 設立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자루비노 항만의 확장 및 훈춘과의 철도 연결에 대해 중국측과 協力을 하면서도 두만강지역 개발에 積極的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나호트카-보스토치니 특구를 시베리아철도 연결 수송의 중심지와 背後 工團으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향상시키고, 북한의 개방 시범지역인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開放을 유도하기 위해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同 地域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바,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計劃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第 V 章 韓國의 對러 經協 評價와 推進方向

### 1. 對러 經協의 評價

한국은 1994년 가을로 修交 4주년과 「한·러 기본관계조약」 체결 2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相互 經濟補完 關係의 강화와 經協 확대를 통한 域內 平和構築 및 유리한 統一環境 造成이라는 세가지 전략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대러 經協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상호 경제보완 관계의 강화와 관련, 1993년 양국간 貿易量은 1992년 대비 129% 증가하였으나 동북아 역내에 대한 러시아 무역의 9%, 한국 對北方 貿易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며, 투자, 기술도입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도 域內 他 國家들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에 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러시아의 政情 不安과 經濟 混亂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短期的인 접근방법과 부정적인 對러 視角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對外經濟 關係에서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원과 1억 5천만의 인구 및 고 수준의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國家임에 틀림없다. 러시아 또한 한국의 경제개발 經驗,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 소비재 상품 등을 자국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必要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단



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潛在力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호 경제보완 관계를 강화할 경우 제분야에서 경협을 擴大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政局을 더욱 안정시키고 對러 선린우호 관계를 鞏固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러시아 정국안정과 경제혼란 극복 趨勢를 계기로 미, 일 등이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는 바, 2차에 걸친 한·러 頂上會談을 통해 경협 확대의 기초를 마련한 한국은 資源貧國으로서 지구상의 마지막 「프론티어」(frontier)인 동 지역 개발에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確保해야 할 것이다.

경협 확대를 통한 역내 평화구축과 관련,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核開發 의혹에 따른 핵 투명성 확보의 방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차 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1994. 8. 5~13)을 계기로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는 바, 이는 미·북 양국이 關係 正常化를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현재와 미래의 핵계획을 凍結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의 이와 같은 해결은 核 透明性을

확보하려는 한·미·일 공조체제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실현하려는 러시아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러 간의 이러한 긴밀한 협조관계는 양국간 경험의 확대가 그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對러 經協 擴大를 통해 양국간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 등 양국간 이해가 일치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서 동북아 역내의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努力을 경주하되, 러시아가 우리 안보를 危害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對러 경험과 連繫,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과 관련,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로 국제적으로 孤立되어 있으며 대내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維持·強化하기 위하여 1991년 가을 한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동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對南政策에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핵개발 문제를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과 對미, 對일 修交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왔으며 김일성 死後에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하나의 조선」論理에 입각하여 對南 二重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反面,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정

부는 북한이 기존의 폐쇄정책을 拋棄하고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는 한편, 脫冷戰의 국제질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일 체제가 대내적으로 정착이 되면 북한이 점진적으로 制限的인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개방의 시기와 범위 및 속도는 아직까지 不透明한 상태에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두만강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개방 유도를 기대하고 있으나 同地域開發이 접경 3국의 상이한 개발 계획과 자본 부족으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다른 代案을 모색할 時點에 있다고 판단된다.

## 2. 對러 經協 推進方向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考慮, 우리 정부는 對러 經協을 段階的으로 확대하되 우리의 安保와 연계시키는 한편, 러시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한·러·북 3角經協 可能 事業들의 실현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가. 段階的 經協 擴大

우리 정부는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輸出과 천연자원 輸入이라는 현재의 貿易政策 基調를 유지하되, 러시아가 경제

혼란 상황을 1993년에 탈피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短期的으로는 소비재 중심의 중 소규모 투자, 中·長期的으로는 기계·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選好하고 있는 합작투자를 확대하고 군수산업의 민수화 작업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海外 就業을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의 첨단과학 기술자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상호 보완관계를 강화할 必要가 있다. 무역, 투자, 구소련 경험차관 및 자원의 장기적인 안정적 確保와 관련,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 (1) 貿易

첫째, 對러 무역확대와 무역수지 적자 是正을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 치약 등 단순 소비재보다는 러시아에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섬유류와 고부가 가치 제품, 기계·설비의 수출을 擴大해야 할 것이다. 특히 円貨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고 현지에 직매장과 A·S 센터를 設置, 運營함으로써 한국 제품에 대한 信用度를 고양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무역은 현재 대부분 中小企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상품가격과 시장상황에 관한 양국간 정보교환 체제의 構築이 필요하다. 러시아 商工會議所는 駐韓 러시아 상공회의

소와 러시아 주요 50개 도시의 지방 상공회의소 및 한국 기업들의 貿易 파트너가 될 수 있는 4,000여 러시아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연결해 주는 情報電算網을 구축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들은 이를 적극 活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 Expocenter가 每年 주최하는 Consumeexpo와 Prodexpo에 KOTRA와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광고 및 수송물품 검사 등의 부문에 從事하는 양국 기업인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 관세 및 세율의 잦은 변동으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兩國間 협정서 및 의정서 체결을 통해 일관성 있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 1992년 체결된 貿易協定을 양국간 경제관계 발전에 따라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대금 결제상의 隘路를 타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모스크바 등 자유경제지역 설치 예정지에 국가차원의 保稅倉庫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現地 時勢에 따라서 현금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L·C 거래가 어려운 러시아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 開放的인 외환관리와 D·A 또는 D·P 등 彈力的인 결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2) 投資

첫째, 러시아는 對韓 經協에서 한국과의 合作투자자를 제일

선호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투자 환경은 고율의 세금과 관세, 경직된 관료제, 법률의 수시 변동 등으로 아직까지 크게 改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경제혼란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우주, 항공, 광학, 통신, 합금소재 등 尖端技術 分野에 대한 합작투자의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지방의 중소기업들과 접촉하여 치약, 비누, 칫솔, 플라스틱 가정용품, 화장지 등 消費財 합작투자(10~50만 달러 정도)를 활성화하고 점차적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 기술과 資本 集約的인 업종으로 합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 생산된 물품은 러시아 國內消費 뿐만 아니라 CIS와 동구 등 제 3국으로의 판매도 摸索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일·중 등 역내 국가들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先占을 위하여 同 地域의 하부 구조 시설 개선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도 항만·도로·호텔 건설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 지역의 資源開發을 위한 본격 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현재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지분 참여를 許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가격보다 저렴하게 기업을 引受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수산업의 민수화에 대한 참여는 주의를 요하는 바, 러시아 정부의 武器輸出 확대정책으로 동 프로그

램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경제가 회복기에 進入하는 경우 아파트 및 大規模 건물의 대량 건설 등이 예상됨으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이에 對備해야 할 것이다.

### (3) 舊소련 經協借款

前述한 바와 같이 구소련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1993년 4월 러시아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考慮, 채무의 상환기일 조정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파리클럽」 회원국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파리클럽협정」에 따라서 會員國과 체결한 상환조건과 상이한 조건으로 제3국과 채무상환 교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既執行된 14억 7천만 달러 차관과 이자를 現金으로 상환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중 일부를 軍事武器와 原資材로 상환받기로 러시아 정부와 暫定 合意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이와 같은 最近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을 再次 지체시키는 경우,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現物償還 뿐만 아니라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 株式으로의 상환 등을 통한 해결을 摸索함으로써 구소련 경협차관과 관련된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視角을 조속히 解消할 필요가 있다.

#### (4) 資源確保

첫째,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경제회복 가능성에 따른 역내 타국들의 본격적인 진출 준비,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과 해외건설 經驗 등을 고려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개발에 과감한 先占 投資를 모색할 시점에 있다.

둘째, 동 지역의 개발은 大規模 투자와 장기간을 요하는 바, 투자상의 부담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미·일 등 관련정부와 대기업들의 컨소시엄 形態로 개발에 참여하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 프로젝트 금융은행」(Russia Project Financing Bank)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방법도 講究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對러 천연자원 개발이 本格的으로 착수될 경우를 對備,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전용의 港灣施設을 극동 지역에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國家間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豫測되는 바, 우리 정부는 관련 지방정부 지도층 인사들과의 人的 交流를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

#### 나. 經協과 韓國 安保의 連繫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정책을 推進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를 계속 支持하면서, 구소련이 북한



에 핵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 핵의 투명성 確保를 위한 노력에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退役潛水艦 販賣와 러·북 동맹조약의 폐기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政策들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安保危害 사안들을 對러 경협문제와 연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가 解決되고 南北韓 交叉承認이 완결되는 경우 러시아는 對북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의 안보문제와 對러 경협의 연계 필요성은 더욱 增大될 가능성이 높다.

#### 다. 3角經協을 통한 北韓의 開放誘導

두만강 지역 개발이 관련국 간의 相異한 개발계획과 자본 부족으로 遲延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가 동 지역 개발에 消極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동 지역의 개발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은 短期에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러시아 外務部는 최근 한·러·북 3각경협이 可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表 17>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金正日 體制 출범 이후 경제회생에 최대의 정책적 역점을 두기로 결정하고 자유경제 무역지구로 지정된 나진-선봉 및 청진항에 이어

신의주, 남포, 원산, 개성 등도 이에 준하는 水準으로 개방을 확대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한 북한의 개방유도 정책을 長期的으로 추진하되, 短期的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한·러·북 3각경협 가능 사업의 실현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誘導할 수 있도록 러시아정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국측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摸索해야 할 것이다.

3각경협을 위한 여건이 成熟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첫째, 3국의 제안을 공동 검토하고 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實務機構(假稱: 한·러·북 經協 諮問委員會)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3각경협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식을 基本模型으로 하되 우리 정부는 협력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柔軟性을 보일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3각경협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協力 分野를 소비재 생산 및 농업, 임업, 어업분야로부터 광물과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공장 건설로 점차적으로 擴大하고, 협력 지역을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및 나진-선봉 등 북한의 經濟特區로부터 북한의 他地域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表 17〉 3角經協 可能 事業에 대한 러시아의 提案<sup>48)</sup>

- (1) 농업분야
-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지역을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곡물 및 채소류의 경작 및 가공
  - 러·북간에는 협력경험이 있음
  -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농업기술을 접합, 생산된 농산물을 러·북에 공급
- (2) 임업분야
- 야쿠티야, 마가단,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지역의 목재 벌채 및 가공
  -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목재가공 기술 및 기계류, 러시아의 자원 결합
  - 제재목을 일·한 등 아·태지역으로 수출
- (3) 어업
- 극동지역 러시아 경제수역 및 공해상에서 공동조업 및 수산물 가공
  - 러·한의 선박과 가공기술, 북한의 어부 접합
- (4) 석탄개발
- 쿠즈바스, 야쿠티야, 연해주 및 하바로브스크 지역 석탄 개발
  -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유휴 채탄설비 접합
  - 동지역의 수요 충족, 남북한에 공급, 제3국 수출
- (5) 에너지자원 개발
- 야쿠트 가스전, 극동지역 석유 개발
  - 남북한 연결 운송관 건설로 한·일에 공급
  -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재정지원 및 설비와 접합
- (6) 철광 개발
- 야쿠티야, 마가단, 하바로브스크 및 연해주 지역 철광 및 비철광석 개발
  - 러시아의 기술·설비, 한국의 재정지원 및 장비, 북한의 노동력 접합
  - 생산 광산물의 가공

48)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 북한, 러시아 3각협력 가능성 모색,” 『북방통상정보』, 1994. 1, pp. 128~30.

- (7) 소비재 생산
  - 북한의 건축자재 및 노동력, 한국의 재정지원 결합
  - 생산품의 러시아 공급 및 시계시장 수출
- (8) 에너지, 석유화학, 전자제품 생산
  -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생산기지 건설
  - 북한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구상무역 형태로 보상
  -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
- (9) 러시아 기업현대화에 참여
  - 비철금속, 기계공업, 경공업, 건축자재 생산기업의 현대화에 참여
  - 한국의 재정 및 기술, 북한의 노동력 및 건축자재 접합
- (10) 건설업
  - 북한의 대러 부채상환 방법 일환으로 추진
  - 북한의 노동력 및 건축자재, 한국의 재정지원 및 설비 접합
- (11) 북한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 한국이 북한과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경우 가능
  - 러시아는 연구, 디자인, 기술, 설비를 제공, 북한의 인력 양성
- (12) 북한내 기업 현대화
  - 구소련 기업이 제공하던 기술을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지원
  - 김책 제철소: 러시아 설비 및 코크스탄, 한국의 재정지원 및 설비 접합
  - 베어링, 에나멜, 와이어, 배터리, 엔진: 한국의 재정 및 설비, 제품 구상
  - 신리 정유소: 러시아의 설비 및 원유 공급, 한국의 재정 지원
- (13) 허천
  - 고리키 기계공장 건설
  - 한국기업인들 이미 관심 표명
  - 북한의 한국 직접투자 반대로 러시아 등 제3국 중개 필요
- (14) 북한 경공업의 가동율 고양
  - 한국의 원·부자재 공급
  - 러시아 및 제3국으로 수출
- (15) 북한 공장의 현대화 및 새로운 생산라인 건설
  - 비철금속, 조선, 열차 및 운송기기, 건축자재, 경공업, 선

## 박수리 분야

- 북한의 천연·산업자원, 한국의 재정과 설비 및 기술, 러시아의 설비와 디자인 접합
- (16) 한반도 종단철도 재건 및 공동운영
- 한국의 재정지원, 러시아의 기관차와 수송기기 접합
- (17) 두만강 계획과 연계하여 전세계 교통요충지 건설

## 參 考 文 獻

## 1. 단행본

- 金圭倫.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3. 20.
- 金學洙. 「豆滿江地域 開發構想到 대한 論議와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3.
- 朴濟勳. 「CIS 域內 交易 및 金融機關 分析」.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12.
- 朴濟勳.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資與件」.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6.
- 聯合通信, 「聯合年鑑 1994」.
- 李昌在.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4.
- 鄭永祿. 「東北亞地域 貿易構造와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1.
- 諸成鎬, 「頭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12.
- Deutsch, Karl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8.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1st quarter 1994*. London: EIU, 1994.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2nd quarter 1994*. London: EIU, 1994.

Jelzin, Boris. *Die Alternative: Demokratie statt Diktatur*. Frankfurt/M: Goldmann Verlag, 1991.

## 2. 논문

高致赫. “韓國企業의 對러 進出戰略 - 러시아極東 시베리아 地域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1993. 9.

김달중. “북방정책과 한 동구관계 개선의 의미.” 「민족지성」. 1989, 8.

김영범, “한·대만의 구소련 동구 진출현황 비교.” 「북방통상정보」. 1994. 3.

金學俊. “韓國休戰 이후 現在까지의 大韓民國의 北方政策.” 「韓國 北方關係의 政治外交史的 再照明」. 韓國政治外交史學會 論叢 第6輯. 서울: 평민사, 1990.

Morozov, D. V.. “한·러 경제무역 협력전망.” 「북방통상정보」. 1994. 6.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 북한, 러시아 3각협력 가능성 모색.” 「북방통상정보」. 1994. 1.

서기원. “우리기업의 대러시아 투자현황.” 「북방통상정보」. 1994. 6.

오승구. “(구)소련 극동지역의 자원현황 및 진출방안.” 「세

- 계경제」. 1992, 3/10.
- 임을출. “두만강개발을 위한 日·中·러 삼각협력체제 본격 시  
동.” 「북방통상정보」, 1993. 7.
- 韓昇洲. “韓國 新外交의 基調 - 世界와 未來指向의 新韓國  
外交 -.” 서울: 外交協會, 1993. 5. 31.
- Anosova, Lyudmila A.. “East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Field for Russian-Korean Long-Term  
Cooperation.”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improving the work with foreign investments.” *Moscow  
News*. No. 43, October 22, 1993.
- Kozyrev, Andrei. “Russia: A Chance for Survival,”  
*Foreign Affairs*, vol.71, no.2. Spring 1992, p. 9.
- Pleshakov, Konstantin. “Our National Interests in the  
Transitional Period.”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Nov. 1991.
- “Russia’s Foreign Policy Concept.”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1.1993.
- Shipaev, Victor I.. “A New Russian Perception of South  
Korea.” in Il Yung Chung (ed.). *Korea and Russia:  
Toward the 21st Century*.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2.



Stefashin, Viktor.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 -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2, 1992.

Titarenko, Mikhail L..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Volsky, Dmitry. "How to Help Russia, and by What Means." *New Times*. 42. 93.

Volsky, Dmitry. "Moscow-IMF: Without Illusions and Prejudices." *New Times*, 6. 94.

Zhebin, Alexander Z..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 3. 기 타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Defense New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Korea Herald*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북한의 대남동향 분석(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일 WORKSHOP :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 (vol. 1)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2)

KOREAN PENINSULA TREND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研究報告書 94-03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9月 日

發行日 1994年 9月 日

---